

# Chapter 02.코틀린 기초 - 07.클래스 와 프로퍼티

## 클래스와 프로퍼티

#### 1. 클래스

• class 키워드를 사용하여 클래스를 선언한다

```
class Coffee {
  //...
}
```

• 코틀린의 클래스는 본문을 생략할 수 있다

class EmptyClass

• 코틀린의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와 하나 이상의 보조 생성자가 존재할 수 있다

class Coffee constructor(val name: String)

• 기본 생성자는 constructor 를 생략할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val name: String)
```

• 코틀린에선 클래스에 프로퍼티를 선언할때 후행 쉼표 trailing comma 를 사용할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
  val name: String,
  val price: Int, // trailing comma
)
```

- 후행 쉼표를 쓰면 이전의 마지막 줄을 수정하지 않고 프로퍼티를 쉽게 추가할 수 있고 git에 서 diff 등으로 코드를 비교했을때 변경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다.
- 후행 쉼표를 쓰지 않고 diff 했을때

• 후행 쉼표를 쓰고 diff 했을때

### 2. 프로퍼티

• 먼저 코틀린의 프로퍼티는 val, var 키워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
var name: String = "", // 기본 값 추가
var price: Int = 0,
)
```

• 프로퍼티를 수정하거나 사용하려면 참조를 사용하면 된다

```
fun main() {
 val coffee = Coffee()
 coffee.name = "아이스 아메리카노"
 coffee.price = 2000

println("${coffee.name} 가격은 ${coffee.price}")
}
```

#### 3. getter, setter

- 코틀린은 var로 선언된 프로퍼티는 getter, setter 를 자동으로 생성한다
- 아래의 코드는 실제론 필드의 setter를 사용해 값을 할당한다

```
coffee.name = "아이스 아메리카노"
```

• 해당 필드를 사용할시에는 getter를 사용한다

```
println("${coffee.name} 가격은 ${coffee.price}")
```

- val로 선언된 프로퍼티는 getter 만 존재한다
- 또한 코틀린은 커스텀 getter를 만들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
  var name: String = "",
  var price: Int = 0, // trailing comma
) {

  val brand: String
      get() = "스타벅스" // 커스텀 getter
}

fun main() {
  val coffee = Coffee()
  coffee.name = "아이스 아메리카노"
  coffee.price = 2000

  // brand를 포함해 출력
  println("${coffee.brand} ${coffee.name} 가격은 ${coffee.price}")
}
```

• var로 선언된 프로퍼티에 한하여 커스텀 setter를 만들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
   var name: String = "",
   var price: Int = 0, // trailing comma
) {
   val brand: String
       get() {
           return "스타벅스"
       }
   var quantity: Int = 0
       set(value) { // 커스텀 setter
           if (value > 0) { // 수량이 0 이상인 경우에만 값을 할당
               field = value
           }
       }
}
fun main() {
   val coffee = Coffee()
   coffee.name = "아이스 아메리카노"
   coffee.price = 2000
   coffee.quantity = 1 // 주문 수량 추가
   // 수량을 포함해 출력
   println("${coffee.brand} ${coffee.name} 가격은 ${coffee.price} 수량은 ${coffee.quantity}")
}
```

- 코틀린은 getter, setter에서 field 라는 식별자를 사용해 필드의 참조에 접근하는 데 이를 Backing Field 에 접근한다고 합니다.
- 그럼 Backing Field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? 코틀린에서 프로퍼티에 값을 할당할때 실제론 setter를 사용하는데 이때 무한 재귀 즉 StackOverflow 가 발생할 수 있다

```
var quantity: Int = 0
set(value) {
    if (value > 0) {
        quantity = value // 재귀 호출
    }
}
```

• 또한 코틀린의 프로퍼티는 객체지향적이다. 기본적으로 객체지향에서 객체의 상태는 프로 퍼티로 표현하고 행위는 메서드로 표현하는데 자바는 상태를 메서드로 나타냄

```
public class Java_Coffee {
    private boolean isIced;
   public boolean isIced() {
        return isIced;
    public void setIced(boolean iced) {
       isIced = iced;
}
class Barista {
    public static void main(String[] args) {
        Java_Coffee coffee = new Java_Coffee();
       coffee.setIced(true);
       if(coffee.isIced()) { // 상태를 메서드로 표현
           System.out.println("아이스 커피");
       }
   }
}
```

• 코틀린은 프로퍼티를 사용해 상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자바보다 객체지향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

```
class Coffee(
  var name: String = "",
  var price: Int = 0, // trailing comma
  var iced: Boolean = false,
) {

  val brand: String
    get() {
        return "스타벅스"
    }

  var quantity: Int = 0
    set(value) {
        if (value > 0) {
            quantity = value
```

```
}
}

fun main() {
  val coffee = Coffee()
  coffee.name = "아이스 아메리카노"
  coffee.price = 2000
  coffee.quantity = 1
  coffee.iced = true

if (coffee.iced) { // 프로퍼티
    println("아이스 커피")
  }
  println("${coffee.brand} ${coffee.name} 가격은 ${coffee.price} 수량은 ${coffee.quantity}")
}
```